

# “기강해이 엄단...수시로 문책인사”

### 윤장현 시장 “KTIX 광주역 진입 문제 시민 입장 우선 고려”

#### 광주시 월례조회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민선 6기 들어 외부에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광주일보 8월27일자 2면)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월례 조회에서 “공직 사회 질서와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을 시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강이 해이해지고 시정발전에 발목을 잡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일과 승진은 따로 놓지 않

는다”며 “일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유심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연말에 인사를 하겠지만 실국장을 막론하고 그 이전에도 보직인사를 단행하겠다”며 수시 문책인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시장은 또 월드컵경기장과 광엑스포전시장 등의 예를 들면서 “취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민세금이 투입된 시설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오른 광주대 앞 5·18 사적지와 관련한 민원을 거론하면서 “얼마나 이른 시간에 해결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IX광주역 진입과 도시철도 2호선 등에 대해서도 그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첫째고, 이후 광주역세권이 지역발전 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KTIX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재논의도 이러한 방식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비정상·불합리 인사 없애겠다”

### 이낙연 지사 “사건 없이 객관적 평가...청렴도 향상시킬 것”

#### 전남도 정례조회

“지사 공관에 사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물론 마당을 밟은 사람도 단 한 명 없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1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최근 단행한 인사 등에 대해 자평을 했다. 청렴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선 6기 출범과 조직개편 이후 서기관 이상 고위직은 중폭 규모 이상을, 사무관 이하는 소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는 사적인 판단이 0.1%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공직자를 잘 모르니까 당연하다”고 덧붙

였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사(私)가 끼어들지 않도록 가급적 모르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에 대한 자신의 목표는 ‘공직자가 인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상 요소와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두가 만족까지는 않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가 승진(과징)에

서 서운해 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며 “다만 자리의 배치, 즉 전보는 자신들의 뜻대로만 안 될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가 인사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전남도청 안팎에서 최근 단행된 첫 인사에 대해 무난하다, 선임인데도 승진을 못한 공직자를 배려한 파스함도 느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청렴도 향상과 관련, “나부터 세심하게 스스로를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작통 명품 1위는 ‘루이뷔통’

### 올 상반기 166억원...적발품목, 가방 ↓ 시계 ↑

관세청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작통명품 가운데 적발액이 가장 큰 상표는 ‘루이뷔통’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루이뷔통은 최근 5년간 지적재산권(이하 지적권)을 위반한 밀수출입 적발액이 매년 최대인 상표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액은 ▲2009년 1554억원 ▲2010년 1234억원 ▲2011년 1069억원 ▲2012년 766억원 ▲2013년 314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액은 166억원이다.

연도별 적발액은 ▲2009년 1554억원 ▲2010년 1234억원 ▲2011년 1069억원 ▲2012년 766억원 ▲2013년 314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액은 166억원이다.

관세청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해 단속한 가방류 적발 액수는 ▲2009년 3002억원 ▲2010년 2374억원 ▲2011년 2255억원 ▲2012년 2432억원이었다가 지난해 83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작통 가방류 적발액도 463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작통 물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은 시계류(7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시계는 지난해 수입액이 2163만 4000달러(219억3000만원)로, 관세청이 월별 통계 자료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진품인 명품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작통 명품시계도 수입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청이 지적권을 위반해 적발된 작통 물품액수는 ▲2009년 1조2481억원 ▲2010년 1조859억원 ▲2011년 7562억원 ▲2012년 9332억원 ▲2013년 5750억원, 올 상반기 2034억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U대회 조직위-국기원 업무협약 체결.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만순 국기원장과 U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기원은 국내외 태권도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을 활용한 홍보 등 광주유니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제공>

##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 내년 상반기부터...금융권 고용지원대책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 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여건

이 악화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권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콜센터 가다,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

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적극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국 28곳에 설치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가운데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市·道 기관장 1면에서 계속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적법·타당성, 회계 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여 여수 경도와 오동재, 영산재 등 관광사업과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임원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커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체육회도 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체육회 신임 상임부회장 내정자는 김철신 전남남도도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광주시 감사담당 직원을 불러 교통문화연수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수당 부당지급과 부적절한 인사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연수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초기 이안 빛반질,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마지, 웨나트 복합치료  
② 에드를레이저: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체오 레이저: 쉐몰렉스, 디오오우즈  
④ 피부 미백: 쉐몰렉스, 쉐몰렉스, 쉐몰렉스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⑥ 안·안: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사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아병원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